"安 중단하던지 나가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촉구

통합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의원, 박지원 전 대표, 조배숙, 최경환, 박주현 의원.

"바른정당 껍데기만 남아…합당 당장 중단해야"

"합당 않는게 상지상책…안과 유는 수유불상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 통합 중단 또는 당을 떠나 추진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배숙 운동본부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천정배 전 대표, 장병완, 정동영, 유성엽, 김광수, 최경환, 윤영일, 박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히 전날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탈당을 언급하며 안 대표를 향해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도지사 탈당 사례를 언급하며 "바른정당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정당과의 합당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안 대표가 유 대표에게 배워야할 것 두 가지가 있다"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과 의원총회를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가 유 대표의 시간 끌기 전략에 부화뇌동하다가는 껍데기만 남은 당을 만들게 될 것이다. 2월 중순까지 보수야합이 결론나지 않으면 탈당러시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경보가 아니고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바른정당의 계속되는 탈당 사태로 유 대표의 리더십과 합당이 진퇴양난"이라며 "우리 안 대표 역시 측근의 이탈, 중재의원들의 선대표직 사퇴 및 후 전당대회 제안을 놓고 당 대표실에 걸린 백드롭처럼 진퇴쌍란이 됐다. 어울리지 않는 합당은 안 하는 게 상지상책(上之上策·여러 가지 안 중 가장 좋은 안)"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바른정당은 임시 가설 정당이다.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왜 이런 임시 가설 정당인 바른정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에 대해서 친북좌파라고 하는 바른정당에 기대하면서 합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안 대표가 추진하는 합당은, 누가 뭐라 해도 반민심, 반개혁, 반문재인의 적폐연대, 적폐합당에 불과하다"며 "우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합당을 저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이미 안 대표의 합당시도는 끝이 보인다. 거의 소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수유불상화(水油不相和)란 말이 있다. 물과 기름은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이다. 물인 안철수와 기름인 유승민 둘은 수유불상화하듯 애초부터 같이 할 수 없는 이질성을 갖고 있다"며 "선거에서 이기지고 모인 것은 정당이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라면 정치적 계모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유승민 대표 말처럼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 안 대표,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며 "국민이 판단한다는 선문답 대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할 때다. 만약 바른정당에 가깝다면 당장 지지자들과 함께 넘어갈 것을 권고한다. 저희는 가겠다는 사람을 잡아두거나 하지 않을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더했다.

박주현 의원은 "20대 총선 때 우리 당 수도권 출마자들에게 선거연대가 필요했는데 당 지도부가 일체의 연대를 거부한 결과 아까운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 지난 대선 때도 후보단일화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며 "당시 총선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바로 지금의 대표다. 그때는 선거연대조차 거부하다가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왜 39석을 가진 정당이 10석 곧 8~9석 될 정당에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대일 합당을, 소속원 대다수가 극렬 반대하는데 합당 강행의 비상식적 모습을 보이는 건가. 그러면서 분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문 걸어잠그고 가족 학대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넹전 3형제는 얼음장 밑에 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겨울이 지속될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어제 남북회담과 관련해 나온 당 입장이 안 대표 입장일진대 강경노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과 판박이다. 그것은 우리 강령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쓰고 합당론을 중지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당히 보수신당 건설이 남은 사명이라 하고 나가서 합당이나 창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정숙 의원은 "우리 당내 의사결정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주요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며 "김중로 의원을 전준위 의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11일로 했다가 운동본부측이 알게 되니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안다. 운동본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안철수-유승민 어제 회동…상호 통합의지 재확인

安, 손학규-김한길과도 회동…"생각 다르지 않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바른정당 3차 탈당 사태 및 국민의당 내 통합 찬반 갈등에 대한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안 대표는 전날 바른정당 의원총회 직후 유 대표와 회동했다. 이날 회동은 바른정당 3차 탈당 사태 등으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 '통합 이상기류'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부상하자 각 당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이와 관련, 전날 의원총회 직후 "안 대표와 조만간 만나 얘기를 해볼 생각"이라며 통합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당 대표는 회동에서 상호 통합 의지를 재확인하고 각 당 내부 사정 정리에 서로 힘을 실어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은 이달 말 내지 내달 초께로 예상되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시기보다 1~2주 정도 빠른 시기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에 찬반 갈등이 계속되니까 통합파 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대표는 유 대표와의 회동 외에도 전날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손학규 상임고문을 만나 바른정당 통합 관련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전 대표는 귀국 후에도 그간 통합에 관해 공개적인 의견을 표출하지 않아왔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와는) 그렇게 크게 상황 인식이 다르진 않다"며 "그에 따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각자의 생각들을 저에게 들려주셨다"고 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복귀에 찬반 엇갈려

5선·현역 지사 허용해야
당내 일각 반발여론도 있어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자유한국당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지역 정가 반응은 엇갈린다.

당내 일각에서는 반발여론도 있지만 5선 국회의원 출신에 현역 경기도지사인 만큼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반의견도 있다.

10일 오전 자유한국당 수원병(팔달) 당원협의회 고문단 10여명은 수원 한국당 경기도당을 찾아 남 지사의 복당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기회주의 정치인 복당 시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배신의 정치인 중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남 지사'라며 "당이 어려움에 빠지자 가장 먼저, 가장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탈당했다"고 비난했다.

또 "그를 다시 받아들인다면 국민의당과 통합을 시도하는 유승민 대표를 어떻게 '배신의 정치인'으로 비난할 수 있냐"면서 "당 지도부는 남 지사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수원병은 옛 팔달구 당협으로 남 지사가 5선에 내리 성공한 지역구다. 정치적 고향인 셈이다. 남 지사의 부친인 고 남평우 전 의원도 이곳에서 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반면 남 지사의 복당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마땅한 경기지사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데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등으로 지방선거 구도도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남 지사의 복당 후 출마가 지방선거에서는 악재보다 호재로 작용한다는 정치적 판단도 있다.

복당에 부정적이었던 홍준표 대표는 최근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고 있지만, 중앙당 지도부는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경기도당에서도 남 지사의 복당에 "정치적 선택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 "여당에 맞서 야권 통합 차원에서 남 지사의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회찬·김종대 "MB 현직에 있다면 탄핵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일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다면 바로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국회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죽고 살 정도로 중요한건 1급 기밀로 맺되 적어도 군사동맹에 관한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UAE하고 군사동맹 체결하는 게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며 "당장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동맹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UAE와 비밀 군사협정에 대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비공개지만 국무회의는 통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